

무료 성악교실 운영하는 시각장애 음악인 정용기씨

시각장애 1급인 음악인 정용기(70)씨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눠줄 수 있어 뿌듯하고, 노래를 부르며 행복해 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즐겁다. 정씨는 지난 2000년부터 광주시 북구 유동에 '정용기 성악연구소'를 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성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악 교실을 수료한 사람은 약 200여명.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장기 코스'인 테라 수강생중 20%만 완주하지만, 일단 과정을 마치고 나면 수강생들은 노래에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무료 성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음악인 정용기씨가 수강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위직탐기자 jnwi@kwangju.co.kr

“재능 나눠줄 수 있어 늘 행복합니다”

가요를 배우는 노래 교실은 흔하지만 발성, 호흡 등을 체계적으로 연습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 씨의 강의는 성악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오아시스 역할을 한다. 경희대 음악학과 출신으로 음악교사를 천직으로 알았던 정 씨는 지난 1990년 30년간 몸 담았던 직장(광주에 고)에 사표를 냈다. 신장 혈액 투석의 합병증으로 갑작스레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직 후 집에서 개인 레슨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정 씨에게 또 한번의 시련이 닥친 건 지난 1999년이었다.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자 정 씨는 자신의 재능을 '좋은 일'에 쓰자 생각했다. 교회 성가대 활동을 오래 한 정 씨는 대부분의 성가대원들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열사랍 소리만 듣고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악보 읽는 법만 제대로 알아도 노래를 즐기며 부를 수 있어요. 사실,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싶어도 악보를 볼 줄 모르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것과 같거든요. 여름방학과

90년 음악교사 재직중 시력 잃어 3년 과정 계명·악보 체계적 강의 졸업생들 합창단 구성 사랑 전파 21일 광주문예회관 정기 발표회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1년 44주간을 꼬박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모두들 자랑스러워하죠. 지인의 도움으로 2006년 성악교실을 연 정 씨는 무료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매 강의마다 악보 보는 법, 복식 호흡을 위한 발성, 계명 읽기 등을 시작으로 자신이 얻은 '좋은 가곡 100곡집' 수록곡을 배우고, 가요도 배운다. 3년 과정을 모두 마친 수강생들은 각자 교회 성가대와

구경 합창단 등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수강생들끼리 의기 투합, 한마음한소리합창단을 창립했다. 2006년말 창단공연을 가졌고 이후 교회와 불우시설 등에서 공연을 가지며 이웃들에게 노래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한마음한소리합창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두번째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정용기씨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에서는 성가곡과 한국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노래방에서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가곡 등 수준 높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데 보람을 느끼죠. 내 나이가 일흔인데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든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즐겁고, 또 지휘자로 무대에 설 수 있으니 복 받은 사람이지요." 정 씨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는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2-512-105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내 가슴속의 '그녀'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박후식씨 세번째 시집 '그녀의 집에는'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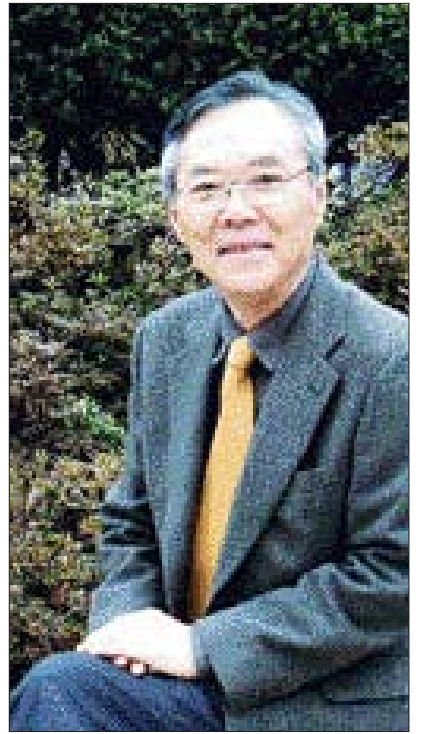
'그녀의 집에는 겨울에도 봄비가 들어와 있다/그래서 아직도 몇 개의 들꽃이 그녀의 마당에는 피어있다/수백 리를 걸어 나와 그녀의 토방 위에 놓여 있다/가느다란 매듭 끝을 흐르는 저 잔잔함이어/ 들꽃은 제 향기를 다할 때까지 그녀의 세월 위에 서 있을 것이다--'('겨울 들꽃' 중에서)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1978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박후식(75·시인) 시인이 시집 '그녀의 집에는'(한국문예)을 펴냈다. 1998년 '바다 그리고 사랑'(한림출판), 2005년 '순금'(한국문예)에 이어 세 번째다. 시인은 지난 2005년에는 광주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친구, 유년시절 추억, 고향 풍경, 들꽃 등 우리 주위에서 사라져가는 옛 정서를 보여주고 소속자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도 담았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소재는 다양하지만 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다. '그리움' '무릇'에서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겨울들꽃' '눈의 산책'에는 세련된 느낌의 현대적인 여성상이, 그리고 '석란' '초승달' '달무리'에서는 당돌하면서도 개방적인 여성상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은 "누구나 가슴 속에 '그녀'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학작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요소로 '그녀'를 차용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연 관조적인 성향을 띤 '수련'이나 인간의 원초적인 그리움과 향수를 탐



박후식씨의 시에는 친구, 유년시절, 고향, 들꽃 등 정겨운 추억들이 묻어났다.

은 '빈집' '길 끝에 서있는 집'에서는 수목화 한 폭이 떠오르며, 순박한 친구와의 우정을 그린 '대방' '친구'를 읽는 동안에는 순수한 동심세계로 빠져들기도 한다.

문학평론가 이명재씨는 "박 시인의 미덕은 현실 치중적인 태도를 배제한 채 고즈넉한 느낌으로 한국의 정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서구적 모더니즘을 추구하거나 사회참여적인 여성 시인들의 시에서는 찾기 힘든 변별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잠자는 숲속의 미녀' 해설과 함께 보세요

4일 광주문예회관...시립무용단 이야기가 있는 발레 공연

해설과 함께 발레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무용단(단장 이영애) 이야기가 있는 발레 공연이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하이라이트 부분을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발레 3부작으로 꼽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1890년 마리우스 피티과 안무로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된 후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클래식 발레의 대표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주인공 오토로 공주와 왕자들의 춤을 비롯해, 라일락 요정과 숲속 요정의 춤, 보석의 춤, 고양이 춤, 파랑새의 춤, 늑대와 소녀의 춤 등을 만날 수 있다. 오토로 공주역의 박선희·조나경씨를 비롯해, 김선돈·박정호·강병찬·정유진·정정은·유운지·박정호·여숙현·김지환씨 등이 출연한다. 일반 1만원, 학생 5만원. 문의 062-522-8716.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스튜디오 보급 문고본 99종 판매

출판계가 일반인들이 싼값에 사볼 수 있는 보급판 문고본을 만들어 판촉을 시작했다. 주요 서점과 단행본출판사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는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기존 단행본의 크기를 12cm×17cm로 줄이고 가격도 6천원 안팎으로 낮춘 보급판 문고본 99종을 만들어 4월1일부터 판매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문고본들은 인타파크도서,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리브로 등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7곳을 통해 판매된다. 해당도서는 출간된 지 18개월 이상된 구간들로 가격은 기존 단행본의 60% 수준인 5천원에서 8천100원이다. /연합뉴스

신호재씨 초대전 5~7일 파주 청개구리 갤러리 섰

신호재씨가 5~27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에 위치한 청개구리 갤러리 섰에서 초대전을 연다. 신씨는 이번 전시에서 '하늘을 보다'를 주제로 푸른색을 통해 동양의 순환론적 사고를 제시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추상(抽象)과 구상(具象)이 혼합된 듯한 그의 작품에는 푸른색을 중심으로 하늘, 산 등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상징들이 담겨 있다. 또 가파른 말라버린 저수지 바다처럼 불규칙하게 그려진 무수한 격자무늬를 통해 죽음과 삶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작품들도 눈에 띈다. 전남대 미술과 조선편 대학원 출신으로 가산화랑 기획초대전, 한국회화 조명전을 열었고 국제현대 미술제 등에 출품했다. 문의 031-949-9522.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such as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하미 시네마', '무등극장', and '제일 시네마' with movie titles and showtimes.